“새 정부 기조 맞춰 전남 미래발전 핵심과제 속도내야”

金지사, 정례조회서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국정과제 채택·SOC예산 추가확보 독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7월 정례조회에서 직원들과 민선 8기 3주년 성과를 축하하고 전남 미래 발전 도약을 기약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정부가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 만큼 서남권 인구 50만 혁신성장벨트,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미래 발전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7월 정례조회를 열어 “민선 8기 마지막 1년이 남아 어떻게 약속한 것을 성과로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시기다.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6월3일 대선 과정에서 전남이 83.6%의 높은 투표 참여율이 나오게끔 공직자들이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22일 만에 광주·전남에 오셔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는 6자 TF를 구성키로 하면서 답을 내놓는 등 호남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후 대통령실, 중앙부처 등과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지사는 전날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잇따라 방문해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서남권 인구 50만 혁신성장벨트 ▲광양·순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고흥 제2우주센터 조성 ▲여수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 ▲서남권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 ▲무안공항 인근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조성 ▲에너지 자립형 미래신도시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K-디즈니 순천 조성 등이다.

김 지사는 “현재 전남의 미래 발전 핵심 과제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다. 대통령께서 나중에 크게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는 한다면 하는 분이고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성격이다. 이 과제들이 잘 되면 전남은 현재 180만명인 인구가 200만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김 지사는 정부 추경과 관련,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예산 추가 확보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등을 독려했다. /김재정 기자

“아동학대 조기 대응” 동네편의점 적극 동참

광주시 ‘우리동네 히어로 업무협약’
1천300여개 편의점 안전망 역할

광주시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우리동네 히어로 편의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최영철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 문승일 CU 전남지역부장, 임주환 이마트24 영업2담당, 권오기 GS25 지역팀장, 김일연 세븐일레븐 부문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편의점 운영사들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점이 지역사회 아동보호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관계기관과 유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고 편의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편의점 운영사는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공간으로서 환경을 조성하고 안내물·포스터 등을 통한 시민 대상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선다. 또 아동학대 인식, 신고 방법, 위기아동 응대 요령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인지 시 즉각적인 신고와 관계기관 연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편의점 운영사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1천300여개 편의점을 아동보호의 생활 밀착형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수희 기자

“AI·미래차 산업 경쟁력 갖춘 광주에 투자하세요”

市·경제청, 수도권 기업인 등 초청 팸투어
산업·문화 인프라 체험…맞춤형 투자 유치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인공지능(AI) 유망기업, 출향기업인, 수도권 경제·투자 자문위원 등 12명을 초청, 광주지역 핵심 산업과 문화 인프라를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는 광주의 산업 경쟁력을 현장에서 소개하고 잠재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광주의 주요 산업 거점과 문화 명소를 잇따라 방문, 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투어에 참여한 인사들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첨단3지구 홍보관 ▲AI집적단지(국가AI데이터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광주가 가진 산업·문화 융합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GGM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실제 생산시설로 구현된 현장을 직접 보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는 연구 개발(R&D), 시험·인증 기반시설을 갖춘 광주의 미래차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광주와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첨단3지구 조성 현황을 청취했다. 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관계자로부터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AI집적단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AI데이터센터와 실증·창업동 공사현장을 둘러보며 광주가 AI 기반 창업 및 산업화의 최적지임을 직접 체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람하며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분야별 맞춤형 설명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했다.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 투자 유치로 연계할 방침이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AI와 미래차 산업의 최적지로 성장 중인 광주의 경쟁력을 기업인들에게 직접 소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도 “기업 맞춤형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해 광주의 투자 매력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道, 넙치·전복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7일까지 연장

전남도가 고수온·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규모화되고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해서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9종), 강도다리, 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